



주요 소식

-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총 13개 작품 제출
- 4생활권 지역 거점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
- 시민들과 함께 뛰는 '2040 행복도시 탄소제로RUN'
- 가까움과 넉넉함, 아이를 함께 키워내는 도시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총 13개 작품 제출

-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경쟁 가속
- 국민참여투표와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당선작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제공모 작품 접수를 11월 20일에 마감한 결과, 총 13개의 공모 작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이 들어설 예정인 국가상징구역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가치를 담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도시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공고 이후 약 8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외 유수의 도시·건축설계 업체 등으로 구성된 13개팀이 참여하였으며, 국가상징구역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반영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가 제안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작품 접수와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도시계획, 건축, 조경,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7인의 심사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심사위원 명단은 국제공모 홈페이지(<http://sejong-compe.kr>)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창의성, 공간 구성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된 작품을 평가하게 됩니다. 본 심사에 앞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민참여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결과를 12월 1일에 진행되는 1차 심사와 합산하여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어 12월 10일에 2차 심사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며, 12월 12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이 조성되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최적의 작품이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청은 국민참여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민참여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가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이며, 국민은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해 투표하게 됩니다.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 공식 누리집(<http://sejong-compe.kr>)과 행복청 공식 누리집(<http://www.naacc.go.kr>), 행복청 공식 SNS(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QR 코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에는 창의성이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제출되는 한편, 국민의 뜻을 계획단계부터 반영하게 되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상징구역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표기간 동안 많은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선택

세종 국가상징구역

투표기간 2025.11.22(토) 10:00 ~ 2025.11.28(금) 17:00

참여방법 ①

QR코드 스캔하여 투표이벤트 참여해 보세요

QR코드 스캔

참여방법 ②

<https://sejong-compe.kr>

공모 홈페이지 접속

세종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 참가작품 중

마음에 드는 3개 작품을 선택해 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3등
말렉시 메스3

1등
말렉시 2용빌7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투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

행복청, 4생활권 지역 거점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

• 행정·소방·치안·우편·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 편의시설 복합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4-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공사 완료하고, 11월중 세종시·세종경찰청·충청지방우정청에 시설을 이관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4생활권(반곡동, 집현동)을 지원하는 지역 복검으로서 총사업비 67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163㎡(부지면적 15,009㎡)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을 통합 건립했습니다.

복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 돌봄센터 등 행정 및 보육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영장·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실·GX룸·악기 연습실·문화관람실·도서관·휴게정원 등을 갖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9안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방차고·훈련탑·출동대기실·체력단련실·심폐소생술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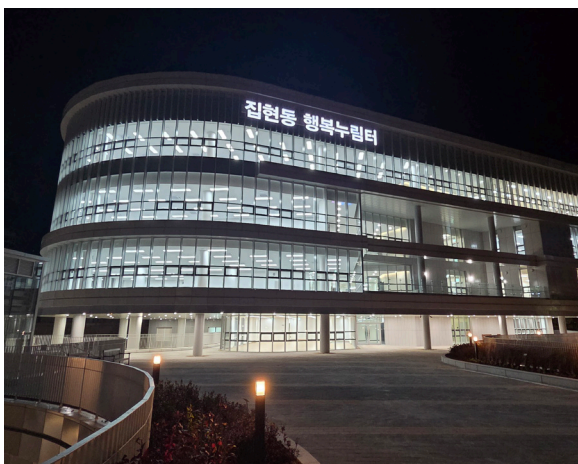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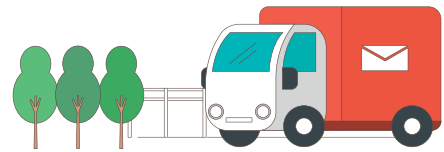
경찰지구대와 우체국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경찰지구대는 민원실·주민상담실 등을 포함하며, 우체국은 집배실·하역장·365자동화 코너·집배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통일된 색채와 재료를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평적 띠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시각적인 일체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각 매스에는 고유한 디자인 요소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연속성 속에서 독창적인 개성을 동시에 구현하였습니다.

기능면에서는 행정·소방·치안·우편·문화·복지·체육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접한 배움터 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계획했습니다.

각 시설은 운영기관의 인테리어 공사 및 개장 준비 후 2026년도부터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뛰는 '2040 행복도시 탄소제로RUN'

• 행복청,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릴레이 러닝 캠페인 개최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탄소제로RUN」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₂0(ZERO)”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음다리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염원하며 힘차게 뛰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캠페인은 행복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시민들과 행복청의 다양한 세대의 직원들이 함께 미래 탄소중립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뜻깊은 릴레이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시민들과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 탄소중립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2021년 9월,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행복도시를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대, 녹색에너지 도입과 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등 ‘5대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형욱 행복청 신임 차장 취임

• 現 행복청 시설사업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형욱(51세) 현 시설사업국장이 11월 12일자로 행복청 신임 차장에 임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 1월 1일이면 개청 20주년이 되는 행복청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임 최형욱 차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울산광역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행복청에서 주택과장,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기획력과 거시적인 안목을 균형감 있게 갖췄습니다.

최 차장은 특유의 소통 능력과 친화력으로 상하 직원 모두의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기획력과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욱 차장은 “지금까지 국토·도시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공공건축물 최초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우수’ 등급 인증 획득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디지털 트윈기반 통합관제로 에너지 효율 높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한국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국내 공공건축물 최초로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이하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우수 등급’을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 등이 통합된 시스템

** 공공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 설치 후 5년 이내 운영성과 확인을 받아야 함(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이번 인증은 공공건축물로서는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성, 지능형 자동제어, 운영관리 체계 등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 평가를 획득한 것으로, 효율적인 설비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2022년 8월 개관한 연면적 3.6만㎡,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기본 등급(25개 항목)과 우수 등급(19개 항목) 등 총 44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우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과 BEMS를 결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설 전 운영과정을 3D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습

니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사용량 예측·자동 제어·폐열회수 시스템 적용으로 수도·광열비 20%, 상하수도 요금 1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과 실시간대 스케줄 관리가 가능해 실내 온도·조명·공기질 정보를 체육관 내 모니터로 이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공공건축물’ 운영의 선도모델로 확립하고, 적용 범위를 행복도시 주요시설로 순차 확대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공 시설 에너지 관리의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본 사례를 행복도시 내 친환경 건축의 대표 모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움과 넉넉함, 아이를 함께 키워내는 도시

박상욱 기획조정관



작년 이맘때, 국내 주재 외신 기자들을 행복도시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 내내 그들의 시선은 놀이터의 아이들과 어린이박물관으로 향하는 가족에 머물렀습니다. 배웅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거리는 무엇이나”고 묻자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대북관계와 정치 이슈에만 달려갔지만, 이제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이 모두의 화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뉴스는 ‘외신’에 불과하지만 이들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서라고 합니다. 아이가 귀한 사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생과 지역소멸은 통계표의 숫자가 아니라 도시의 일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늦은 저녁 불이 일찍 꺼지는 골목, 빈 교실과 사라진 동네 놀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개인의 결단만을 탓해서는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놓고 키우는 선택은 결국 도시가 내리는 결정에 좌우됩니다. 집과 돌봄, 학교와 일터의 거리, 퇴근 이후 남는 시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그 결정을 만듭니다.

행복도시는 국가가 직접 설계한,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생활권을 단위로 삼아 집과 어린이집, 학교, 공원, 도서관을 걷는 동선 안에 배치했습니다. 대중교통을 등뿔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 구조를 핏줄로 삼았습니다. 도시가 시간을 아껴 주면 양육의 하루는 덜 버겁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돈으로만 보지 않고, 시간과 거리, 마음의 여유까지 포함해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도시는 관계를 만듭니다. 육아는 가족 안의 일이면서 동시에 이웃과 직장, 거리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공공의 경험입니다. 집 앞 놀이터의 어른들 시선이 가장 큰 안전망이 되고, 골목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아이의 자율성은 자랍니다. 멀리 있는 대형 시설보다 가까운 생활 시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행복도시가 지향하는 ‘가까운 도시’는 아이와 부모, 이웃을 다시 한 공동체로 엮어냅니다.

도시는 구성원의 생각과 문화도 설계합니다. 가까움은 공공성입니다. 집과 직장, 보육과 쉼터가 이어진 동선이 갖춰질 때, 그리고 안전한 통학길이 있을 때 부모는 ‘연결의 피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이의 권리가 도시의 표준이 되면 스쿨존과 보행, 놀이공간은 교통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이 됩니다. 아이가 우선인 도시에서 어른도 편해집니다. 가까움과 넉넉함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만나겠다는 선택은 더욱 당당해집니다.





세계의 수도와 대도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북유럽은 부모가 함께 쓰는 돌봄 제도를 정착시켜 ‘돌봄의 평등’을 일상으로 만들었고, 프랑스는 유아기부터 공적 배움을 촘촘히 연결해 양육의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주거와 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엮어 첫 몇 해를 집중 지원한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국가와 도시가 함께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면 출산은 사적인 결단을 넘어 사회적 선택이 됩니다. 행복도시는 이 보편적 해법을 공간과 서비스의 언어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행복도시 건설이 시작된 지 20년을 향합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뀔 시간은 과제도 달라지고 성숙해야 할 충분한 기간입니다. 20년 전에는 출산과 양육이 개인적이거나 지역적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국가적인,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행복도시는 시작부터 공동체와 마을, 집 근처 가까운 쉼터 중심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결과,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돌봄과 배움, 쉼과 놀이가 가까이 만나는 도시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정부가 새롭게 맡아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저출생과 지역소멸을 멈추는 해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걷고, 부모가 덜 지치고, 이웃이 서로를 믿는 곳. 도시가 그 기본을 지키면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로 돌아옵니다. 행복도시는 우리 사회에 던진 큰 고민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실험실이자, 다른 도시와 나눌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행복도시를 다녀간 한 일본 기자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처음 와본 도시인데 어릴 적 살던 고향이 떠오릅니다.” 오래된 격언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 마을이 곧 도시라면, 행복도시는 온 나라가 함께 키우는 아이의 첫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제약없이 안전하게! 원수산 둘레길

17기 행복기자단_김진흥 기자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원수산 #둘레길 #무장애순환길 #국토부장관상 #산책로 #행복기자단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에 위치한 원수산을 찾아갔습니다.

원수산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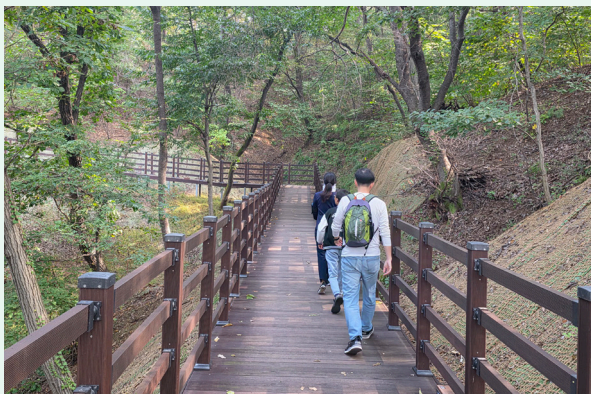
해발 약 251m로 높이는 낮지만 정상에서

행복도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습지생태원,

파랑새숲체험원 등 원수산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친근한 산이 최근 경사가 생겼습니다.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원수산 둘레길

지난 9월에 열린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무장애 순환길 '원수산 둘레길'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장애 순환형으로 제작된 원수산 둘레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제약없이 안전하게 도심 속

산책로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원점 회귀형 보행환경을 지닙니다.

약 5.4km 길이와 폭 2.0m 이상에

최대 경사 8% 이하로 만들어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수산 둘레길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산 둘레길은 원수산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노선으로 계획했습니다. 데크길 주변의 가파른 사면에는 식생 매트를 설치해 숲을 보존했고 진입구 광장에는 현장 유용석과 태양광을 활용한 경관 조명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공원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더구나 둘레길은 일상 속 녹지 네트워크 기능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원수산 주변 생활권과 자연학습 공간, MTB코스, 쉼터 등을 연결해 시민들이 원수산에 쉽게 진입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원과 숲의 주변부 가용지를 활용해 진입구를 4개소로 설정해 주거지와 가까운 위치에 휴게광장을 조성하는 등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원수산 둘레길이 시민 친화형 둘레길로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관계기관의 협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원수산 둘레길과 등산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수산은 등산로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

지도와 낱말을 활용해 어느 길이 등산로인지,

둘레길인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향에 맞게 원수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원수산 둘레길은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과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만든 합작품입니다.

완만한 경사와 안전한 나무 데크길 등

기존 산책로와 차별화된 시민 친화적인 길로 탄생하며

누구나 원수산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원수산 둘레길을 걸어보세요.

행복도시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름 붙인 놀이터, ‘땀범벅 놀이터’

17기 행복기자단_임보름 기자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기자단 #땀범벅놀이터 #행복도시 #로프놀이원 #짚라인존 #언덕브릿지 #흙산모래놀이원 #회전그네존 #어린이감리단

행복도시의 자랑!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름 붙인 ‘땀범벅 놀이터’

이곳은 어린이 놀이터의 모델 1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진짜 놀이터를 만들어주자”라는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흙, 모래, 나무껍질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발로 직접 흙은 밟으며
노는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인 ‘땀범벅 놀이터’
직접 설계는 물론,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하는
어린이 감리단 제도가 도입되었고 놀이터의 이름
‘땀범벅’ 역시 아이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습니다.
‘땀범벅이 될 만큼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겼어요.

총 5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높이와 균형 감각을 익히는 모험 공간인 로프놀이원.
하늘을 가르며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인기 구역인 짚라인존,
오르내리며 신체활동을 즐기는 탐험형 구조물이 있는 언덕브릿지,
자연 감각을 익히며 협동심을 기르는 공간인 흙산·모래놀이원
전통적인 놀이 기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완충형 구역인 회전·그네존!

모든 구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본 곡선형 언덕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미끄럼틀, 그늘막,
모래 구역이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어린이 아닌 ‘아이들이 만든 놀이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 중심의 도시 조성’이라는 행복도시의 철학을
현실로 구현한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아이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을 촉진하는 생활 속
교육공간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아이들이 흠먼지 속에서 웃고 부모님은 그늘 아래서
평온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 속에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놀이터,
행복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땀범벅 놀이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행복이와 떠나는 가을 여행

17기 행복기자단_나지혜 기자

가을의 끝자락! 행복이와 함께 여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추천지 알아볼까요?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을여행 #행복도시 #세종리은행나무역사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원수산습지생태원 #힐링여행



행복이와 한글교시(11교시)



1 '우듬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가파르고 좁은 산골짜기
- 나무의 꼭대기 줄기 ✓

2 일을 해내는 솜씨나 능력

- 제깍손 ✓
- 깃달이



숙제코너 속담 퀴즈

- 1 아무리 바빠도 ○○○○ 때어 쓰지는 못한다
- 2 기름을 버리고 ○를 줍는다
- 3 자식이 자라면 ○○된다

10교시 숙제코너 정답

- 1번 : 도둑
- 2번 : 노수
- 3번 : 은행나무

행복청, 보도자료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공사 완료하고,

11월중 세종시·세종경찰청·충청지방우정청에 시설을 이관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3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됩니다**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산불 예방 수칙

입산통제구역 및 통제된
등산로 **입산 금지**

산림 내에서
라이터, 담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예초기, 용접
작업 시 **산별대책 강구**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철저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인 **산불**,
실수도 처벌 대상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2025
인구주택
총조사**
10.22.~11.18.

인터넷 및 전화조사 | 10.22.~11.18.
방문 면접조사 | 11.01.~11.18.

당신의 답이 대한민국에 좋은 답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당신의 답을 들려주세요

조사대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 표본가구
홈페이지 | census.go.kr
콜 센터 | 080-2025-2025 (무료) *오전8시~오후9시 (주말포함)

모든 예방접종이 질병을 이길 병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일정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 9. 29.(월) ~

임신부 | 9. 29.(월) ~

65세 이상 | 75세 이상 | 10. 15.(수) ~ 70~74세 | 10. 20.(월) ~ 65~69세 |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백신 | 37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질명-비내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중증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구.유니버시아드 대회

2027
08.01-
08.12

개최지 |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주최·주관 | 국제대학교스포츠포럼(FISU)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규모 | 150개국 15,000여명

경기종목
필수종목(18개) | 양궁, 기예체조, 육상, 배드민턴,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망, 탁구, 테니스, 배구, 축구
선택종목(3개) | 비치발리볼, 골프, 조정